

# '실종' 조유나양 가족 탔던 차량, 완도 바닷속서 발견

### 송곡항 양식장 인근 바닷속 '아우디' 육안 확인 수심 7~10m 추정...해경 협의 거쳐 인양 계획

'제주도 살기' 교외 체험 학습을 신청한 뒤 실종된 초등학생 조유나(10)양과 조양의 부모가 동승했던 승용차 차체 일부가 전남 완도 앞바다 속에서 발견됐다.

28일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12분께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서 아버지 조모(36)씨가 몰던 은색 아우디 차량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했다.

수중 수색 요원들이 잠수를 통해 아우디 차량임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앞서 오후 3시 20분께 조씨가 몰던

은색 아우디 차량 앞 라디에이터 덮개로 추정되는 부속품이 발견된 위치와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차체 발견 위치의 수심은 7~10m로 꽤 깊은 곳이며, 차량 내부 상황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완도해경과 협의해 인양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차량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6분께 통과한 것으로 보이는 인근 버스정류장 폐쇄 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실종된 조양 아버지의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8일 오후 3시 20분께 전남 완도군 송곡항 인근 앞바다에서 제주 한달 살이를 떠난 실종가족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아우디 앞범퍼가 발견돼 경찰이 부품을 건지고 있다. /광주경찰청 제공

또 휴대전화 신호가 최종적으로 잡힌 기지국과도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인 조양과 부모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하겠다고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가 아닌 완도에서 일주일 간 머물렀다. 이후 지난달 31일 오전 사이 전남 완도군 신지면 일대에서 일가족 휴대전화 전원이 차례로 꺼졌다. 이후 행방은 이날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조양이 체험 학습 기간이 끝나도 등교를 하지 않자 학교 측은 지난 22일에 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된 지 일주일째인 이날까지 경찰과 해경은 기동대원, 수중 수색 요원 등 340여 명과 헬기, 경비함정 등을 동원해 전방위 수색을 벌이고 있다.

/천기만 기자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  
광주시 접수기간 연장

광주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지원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기간을 올해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지난 1월 3일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광주시대표 임신지원정책의 하나로, 임신부 가사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편안한 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당초 6월 30일까지 서비스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더 많은 임신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오는 12월 31일까지 접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막달 가사돌봄지원서비스는 출산 전 5개월(임신 21주)부터 출산 예정일까지 막달기간에 가사지원(5회) 또는 정리수납(1회)을 지원하는 제도다.

### 서구 내달1일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서구가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및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 주차 ▲충전 완료 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충전구역 주변·진입로에 물건 적재 및 주차 ▲충전구역 표시선 및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적발 시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는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공동주택에 전단지 배포와 안내 방송을 하는 한편, 주요 충전구역 거점 및 대형 육교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장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주요 거점 충전시설에 계도장을 부착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하고, 구청 홈페이지 및 SNS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적극 홍보해 혼란 최소화, 집중 단속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달호 기자

## 오토바이 사고 광주 20대·전남 70대 이상 가장 많아

광주 20대 515건 30.7%, 전남 70대 이상 857건 33.1%

광주·전남 지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대부분이 야간 시간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오토바이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269건(광주 1677건·전남 2592건)의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154명(광주 27·전남 127명)이 숨지고, 5610명(광주 2371명·전남 3239명)이 다쳤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체 오토바이 교통사고 1677건 가운데 18.78%인 315건이 해당 시간에 발생했다. 전남의 경우 전체 2592건 가운데 393건(15.16%)이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해당 시간대 다치거나 숨진 운전자들의 수는 광주 431명(사망 3명)·전남 516명(사망 14명)에 이른다.

요일별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사고가 집중됐다.

광주는 529건(금요일 255건·토요일 274건)이 발생, 전체 건수의 31.54%를 차지했다. 전남은 29.1%인 755건(금요일 398건·토요일 357

건) 발생했다. 오토바이 사고 발생이 많은 나이대는 광주 20대(515건·30.7%), 전남 70대 이상(857건·33.06%)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 사고 위험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고는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개인 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라며 "보도침범 금지, 안전거리 유지, 신호준수, 중앙선 침범과 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자

## 전남교육청, 저소득 학습특별지원금 지원

교육급여 대상자 1만4600명 1인당 10만원씩 지급

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가구 학생 1만 4600여 명에게 1인당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초래된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도교육청은 전라남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2022년 본예산에 사업비 15억 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7월 기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가구 256만540원) 가구의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 학생으로, 7월까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이 확정돼야 한다.

지원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결제 포인트 중 선택 가능하며, 지원금은 학습격차 완화라는 목적에 맞게 학습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점 및 EBS 홈페이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할 수 있다.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과 학부모 등 대리인(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정보상 세대주·성인 세대원)이 6월 29일부터 9월 30일 까지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edupoint.kosaf.go.kr>)에서 신청해야 한다.

/박종배 기자

## 시교육청, 교사노조와 단체협약 체결식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교섭창구 단일화 협약



광주시교육청이 28일 중회의실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하 공동교섭단)과 2021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체결식은 장휘국 교육감, 김환식 부교육감, 이재남 정책국장 등 교육청 간부 10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김재욱 지부장, 광주교사노동조합 운영현 위원장 등 공동교섭단 노동조합 간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교육청은 혁신 교육 12년의 기간 동안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교원노조와의 상생 협력을 추구해 왔다. 특히 교원의 업무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보호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 개정 취지에 따라 두 노조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시작됐다. 지난 2021년

11월 본교섭(상경례)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7차의 실무교섭 및 3차례의 본교섭을 실시한 결과이다.

양측은 총 601개 조항(전문 1개조, 본문 98개조 594개항, 부칙 4개조 6개항)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을 마쳤다.

이번 체결식은 지난 2018년 3월 12일 전교조광주지부와 단체협약 체결 이후 4년 만에 광주교사노조가 처음으로 함께 참여했다. 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체결된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단체협약으로 더 의미가 크다.

주요 합의 사항은 ▲유·초·중 등 교원연구비 균등 인상 노력 ▲초·중등 학급당 학생 수 최대 20명 이내 노력 ▲학급운영비 30만원 이상 편성 권장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소

통창구로 정부에 적극적인 제안 노력 등이다. /김도기 기자

# 농장직영 진남맹생이탕

연소탕 수육 오리탕 닭볶음탕

박래섭

010-6480-3842

전남 장성군 남면 못재로 221

061)395-7977